



# 혁명의 어머니들의 영원한 사랑의 축복

인생은 추억속에 흐른다. 인간의 추억중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마를 줄 모르는 저수지인 어머니의 사랑은 비길데 없는 정과 열의 세계이다. 어머니께나 어머니가 있다. 하지만 어머니라 하여 누구나 만민의 어머니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길이 청초되는 것은 아니며 영생하는것은 더욱 아니다.

어머니! 송고한 그 이름 불러보는 이 나라 천만국민은 어이하여 강렬한 그리움, 슬픈 격정에 휩싸여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상감정에 불타는 것인가.

위대한 어머니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사상감정은 강령은 강령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결사투사로, 사회주의혁명가간결설에 힘입어 고부추동하는 열화의 총정과 의리를 승화시켜주는 사상감정이다.

위인에 대한 추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송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민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낳는다. 어머니, 송고한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는 우리 천만국민의 가슴에는 만경봉의 아늑한 기슭에 자리잡은 추녀났은 초가집트락에서 울리던 《자상가》의 은은한 선율이 뜨겁게 과고든다.

간판서어머니의 혁명생애는 한순간 한순간을 인민에 대한 강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사랑의 력사였다. 언제인가 불쌍한 자기의 조카를 집에서 며칠씩이나 성심성의를 다하여 돌보아준 간판서어머니께 그 애의 큰 아버지가 치료비를 계산한다던 몇백량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디다만 없는 살림이 마음뿐이라며 소박한 성의를 표하였을 때 없이 사는분들에게서 치료비를 받는것은 당치않다고, 없는 애를 더 잘 먹이지 못하게 오하려 마음 한구석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혼연히 말씀하시며 되려 돈을 더 보내어 애에게 해피히라고 웃음을 사주신 어머니, 어머니의 한생은 사랑하는 자식들만이 아니라 이웃들, 나라를 갈망하던 수난의 지옥에 몸부림치는 민족에 대한 사랑의 력사였다.

우리 수령님에 대한 간판서어머니의 사랑, 이는 순수한 애정을 초월하여 수령님을 혁명의 그늘 피어내준 위대한 스승의 사랑이었다. 원정을 떠나기에 앞서 토기점골에 들리신 우리 수령님께서 한구 고생속에 살아오신 어머니, 중환에 계시

는 병약한 어머니를 두고 차마 발걸이 떨어지지 않아 미어지는 가슴을 달래실 때 하시던 간판서어머니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울게 한다.

내가 쌀자루까지 지고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줄을 나는 몰랐다. 알고있는 이 예미적정때문이었지.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면 그만한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늘이려고 무송에서 사랑 네 손목을 잡고 힘찬 명을 남자구 그랬었느냐?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나.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걸이나 빨리 가라.

이런 어머니이시였기에 그처럼 쓸쓸한 병상의 고통속에서도 서슴없이 애의 갈걸을 재촉할수 있었고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한생의 좌우명으로 되게 하는 심원한 당부를 남기실수 있었던것 아니던가. 손가락끝이 모지라지도록 샅배때도 하고 샅바느질도 해서 저축해두신 돈 20원, 그 돈을 손에 꼭 쥐시고 차마 발걸이 떨어지지 않아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고 돌기만 하시던 아드님을 준원히 꾸짖으신 간판서어머니, 누구 조신의 사내라만 맘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떼야 할게 아니라. 내가 장차라도 이 예미적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면 애에 이 문장을 얼연도 하지 말라. 나는 그런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

바로 이날이 어머니수령님께 있어서 어머니를 뵈은 마지막날이 될줄을 어이 알았나. 만안 그대 간판서어머니께서 집적정음을 하시던가 마유의 랑개를 늦추게 하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시지 않으면 것을 퍼고 대공으로 날을 차버를 하시던 어머니의 심중에 과연 어떤 과분이 일게 되었을것인가. 간판서어머니의 사랑은 이렇듯 고요하고 열로 뜨거운 강직하고 송고한 절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 강렬한 사랑을 잊지 못하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뜨겁게 추억하시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 것이다. 꾸짖어도 때칠을 해도 아프지 않은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하고도 시원한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겸

중하는 곡정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정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만으로 떠밀어보내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과 흰옷을 입고 바래주시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의지를 가다듬곤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동편을 떠난 그때로부터 전우들과 함께, 인민들과 함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은 한길, 기아의 길을 헤치시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인 날을 안아 오시었다! 사투리의 기치를 들고 창조와 건설의 반세기를 수놓아오시며 그 길에서 인간사망의 대좌를 가꾸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을 뜨겁게 축복해주신것은 강판서어머니의 이런 위대하고 고결한 사랑이었다.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전선과 그 래력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때면 우리 인민은 배지장처럼 결백한 성품을 지닌 인민이었고, 우리 인민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참을줄 알뿐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분발해나가는 가장 훌륭한 인민이었고,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이 위력하고 하고싶은 일을 다 한다! 사랑하는 인민을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이시었다.

혁사의 경주속에 들어서지 못한 작은 불쌍애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과 지도 정권, 신앙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데에도 내세워주며 바다같이 넓은 품에 애애존경이 우리 수령님의 사랑의 품이었다.

《조선의 모든것에 김일성주석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맥박치고있으며 조선전체가 인민사랑의 혁명사적이야 혁명박물관이다.》

단 한번 우리 조국을 방관한 외국 손님도 이처럼 경탄을 아끼지 않았거늘 하물며 자신을 언제나 인민의 한 성원으로 여기시며 《수령님》으로 불러주시는것보다 인민의 아들로 불리우시시것을 더 반갑고 달갑게 여기신 우리 수령님, 인민에게 부여하시는 진할것 모르는 사랑에서 그치지 않는 행복을 찾으신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의 제험자들인 우리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 어디 어디에 적을 수 있소...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유정혁명사적지와 더불어 같이 전례하고있는것은 어머니의 길에 걸터서서 나를 감싸주시며 수령님께서만 남기실수 있는 사랑의 전설이라고 뜨겁게 추억하신 그대로 어머니수령님의 한생은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한생이었다. 사랑의 미소,

위대한 혁명활동의 나날 마지막 으로 찾으신 회향, 근복업은 어머니의 동상앞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을 시작하시었고 인간에 대한 열화의 정을 기초로 걸출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숙어머니의 위대하고 고결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추억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백두산대국의 천년만미래를 축복하시며 맑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동상을 이윽히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어머니의 한생은 짧았지만 참으로 값있는 삶이었습디다. 우리 어머니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기 전에 수령님의 참다운 전사, 가장 친한동 동지이셨으며 조국의 딸, 인민의 딸이시였습디다!

난의 집 결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난한 가정에서 수난 겪는 민중의 딸로 탄생하신 그날부터 일찌기 가난과 싸우지 않았던 안되었던 김정숙어머니이시었다. 봄이든 진달래와 살구꽃이 만발한 오산덕이건만 그 아름다운 꽃속에 감길새 없이 누워있던 저물어가는 해를 등지고 종일 캔 산나물바구니를 들고 산기슭을 내리시던 어머니의 산고.

어머니의 그리움 때마다 회향에와고싶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수 없었던 지나온 나날들, 어머니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다음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회향에와 오시도록 여러번 말씀드렸으나 그때마다 지은 장군님을 만들어 할 일이 많음을 일떠세우며 고향집부터 찾아보셨는가고 하시며 후에 시간이 끝나와와지 못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본다 어머니장군님께서서는 이런날 감정에 휩싸이시었다.

어머니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 동지들을 위한 사랑의 한생이었다. 동지들과 이웃들, 인민들을 위하여 울고웃으시며 남을 위해주는데서 기쁨과 락을 찾으신 고결한 인성미, 바로 이것이 김정숙동지의 온넉에 관통되어있는 아름다움의 세계였다.

어머니께서 일생동안 해놓으신 모든것은 다 동지들을 위하고 인민들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것이였다. 어머니의 관념속에는 자신이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젊어서도 좋고 열어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출근만 하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것이다! 이것이 인간사랑의 확신으로 영생

하시는 김정숙어머니의 인생관이였다. 이런 불같은 인생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혁명생애의 한순간 순간을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수놓으신분이 김정숙어머니이다.

혁명에 길에 나서 싸우다가 먼저간 동지들의 아들딸들이 귀국하신 반 《혁명당》투쟁바람으로 버림받을 때 눈속에서 풀뿌리를 캐고 나무뿌리를 주어야 할 처지인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정과 열을 주시고 않는 아이들을 돌보아주시어 끝끝내 어머니수령님 앞에 내세워주신 친어머니, 열어죽은 새들보다 널리 허공에 떠다니던 추운 날 보초를 서는 전우들을 위하여 발발하는 불꽃을, 주머니에는 달군 돌맹이를 가득 채워주시며 혁명동지의 넋을 부여하신 그 뜨거운 인성미, 《혁명당》바라리를 앞에 놓고 우리 수령님께서 가슴쓰라려하실 때 장군님, 저는 이 동무들을 믿습디다. 이 동무들은 먹을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것도 입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왜놈들과 용감히 싸운 동무들입니다. 더구나 이 동무들은 《혁명당》무명을 쓰게 된 형편에서도 복탄원정적의 길에 오르신 장군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디다. 저는 저 락자리에 놓여있는 문서들에는 어떻게 써여있는지 모르지만 혁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려는 이 동무들의 마음속도 잘 압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보충하신 김정숙동지!

어려운 지리공작의 나날 지주가 제집에서 싹트 부러먹던 소내가 열병에 걸렸다고 외친 산중초막에 내다버렸을 때 한말씀에 달려가서 의지가 할데 없는 불쌍한 소내를 품에 꼭 껴안으신 그지없는 인성미, 열어붙은 강물도 녹이는 열, 꺼져가던 생명을 살리는 정, 가을같이 풍겨오는 강경, 호수처럼 웅성졌고 가을은 하늘처럼 그지없이 너그러우신 마음속, 마른 나무에도 꽃을 피우고 음달된 인성에도 햇빛이 스며들게 하고 싶어하던 심장으로 다시 불붙게 하는 김정숙어머니의 그 매혹적인 사랑의 미소...

인민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인민과 슬픔을 나누시고 인민의 고통과 불행에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고히 바치신 영원한 우리 어머니 김정숙동지! 태양이 세상천지를 살리는 빛과 열이라면 김정숙어머니는 햇빛같은 미소로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지를 무장시켜주신 광명성이시였으며 용암보다 뜨거운 인력으로 만사를 완

우시고 인생의 불을 꽃피워주신 역만줄기의 해발이시었다. 김정숙어머니의 그 위대한 인간사랑의 세계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고 고결한 인성의 세계를 언제나 소중히 안고 사신 어머니장군님께서는 어느새 실낱 일꾼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지극하였다고, 뜨거운 인성미는 어머니의 친품이었고 그 고결한 인성의 세계를 언제나 소중히 안고 사신 어머니장군님께서는 어느새 실낱 일꾼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32살, 너무도 짧은 한생이었지만 후손만대를 매혹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영원한 혁명생애이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에 남기신 당부도 오직 영원한 친위전사만이 남기실수 있는 유언이 아니었던가. 《어머님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다 잘살수 있게 보살피주시는 위대한분입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장군님을 잘 모셔야 한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시야 우리 나라가 튼튼해지고 인민들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

시시각각 흐려지는 의식을 가사로 더 다잡으시며, 마지막호흡까지 바쳐가시며 혁명의 수명을 잘 받들대 하여 남기신 어머니의 간곡한 유훈, 날이 갈수록 우리 천만의 심장에 더욱 뜨겁게 울리는 김정숙어머니의 절절한 당부는 세계가 우리러므로 조선의 인민들이 다 잘살수 있게 하라는 위대한 유언을 남기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의 미소, 이는 어머니의 넋이 찬란히 꽃피어나는것으로 하여 더욱 빛난다.

성스러운 선군혁명명업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송고한 넋원을 꽃피우며 그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를 영원히 비범한 평등속에 날고 번영하는 우리의 천만국민은 혁명의 어머니들의 송고한 인간사랑의 체온이 뜨겁게 흐르는 오늘날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이 사는 이 땅, 이 하늘아래 하루 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일입니다. 오 자라나고 심장을 불태우시며 사랑의 길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의 길에 조신의 위대한 어머니들의 넋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어나고있는것인가.

한날도 울고 땅도 흐느끼던 피눈물의 나날 혁명의 명맥을 꽃피우어 어갈 만정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웃이시어 원아들이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며 어머니의 정과 열을 넘쳐

나도록 부여주시 경애하는 원수님, 어느 한 애라도 어머니없는 설움을 모르고 마음껏 웃으며 행복하게 자라도록 은 나라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어린이들을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친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할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

어른들도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목매어 부르며 안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인간사랑의 친품에 대한 아기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시대의 하늘가에 울려지고 있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간의 추억은 단순히 회고만이 아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우리 천만국민의 가슴에 어머니들의 간곡한 당부가 뜨겁게 메아리쳐 맹세의 피가 끓어번지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백두산대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혁명의 수뇌부결사투위!

이러는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온넉을 불태우신 조신의 위대한 어머니들의 최대의 넋원이었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애국자, 하늘이 낸 불세출의 혁명가, 민족의 어머니인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대를 위하여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넋원을 휘황찬란히 꽃피우며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인 사회주의 조국의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원수격렬의 신념과 투지로 만장약된 천만대오를 이끄시는 천출명장이신 인민들과 병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편수 승리의 장훈을 부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평등속에 날고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축복해주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로 선악같이 불타일으켜주게 되는 영원한 조신의 어머니들, 조신의 어머니들의 영원한 자식들이 지켜선 이 나라의 모든 초소들은 어머니들께서 바라시던 송고한 뜻이 어머님 현실로 꽃피어나는 길에 있고있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의 꿈을 이루아가는 천만의 열의 대오속에,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끝없이 성장한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조신의 위대한 어머니들의 사랑의 미소, 축복의 미소는 영원히 빛난다.

본사기자 량 순



최도순수장전에 쌓으신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는 참관자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리말라트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 각하

나는 팔레스티나국가선로 26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감정을 종식시키고 독립국가창설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종신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11월 14일 평양

## 로작 학습을 활발히

은평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부터가 로작의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학습하게 기초하여 애매 단원들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작의 진수를 환히 깨닫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일명적인 어느 막장에 내려간 초급당일꾼은 작업의 실행들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여나가지》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로작의 내용을 현실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해설하는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로동동원원 심운섭

## 어머니, 그 부름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들

### 헤아리신 수고와 고충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을 키운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라하면 이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분은 어머니수령님이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어머니대회에서 열렬하시던 어머니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어릴때에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은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이다. 어머니가 준 인상은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좋은 교양을 받았다. ... 어머니들의 수고와 남모르는 고충을 깊이 헤아리시며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것을 중요한 당쟁책으로 내세우시고 가정부인들이 사회의 떳떳한 한

성원이 되어 자식들의 훌륭한 거울이 되도록 늘 마음써오신 어머니수령님,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어머니의 영원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강직과 기쁨으로 온 나라가 설레이던 때였다. 평양시에 사는 한 로병어머니는 아들딸모두를 장군님의 군대로 보내우고있는 소박한 마음에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재대되어온 자식들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다른 초소에서 일하고있는 아들딸들까지 8남매모두를 인민군대에 입학하게 하도록 하는 소행을 벌워하였다. 로병어머니의 이 소행에서 조국과 인민, 시대에 지닌 사명적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명부지휘처가 자리잡았던 골안에 때이르게 추리꽃이 만발하게 피었다. 해마다 5월초가 되어야 피곤하던 추리꽃이 이해에는 날자를 훨씬 앞당겨 피어났었다. 골안은 여기저기에 피어난 하얀 추리꽃으로 하여 마치 흰 구름속에 물린듯 하였다. 몽골

추리꽃이 만발한 날에 실 때 이 덧집을 지어놓았더라면 수령님께서 기뻐하시었을것이라고 뜨거운것이 찾아와서 시는 우리 장군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부르러서 담담히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한 군관이 있었다. 그대 말하면 주제 79(1990)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으셨을 때 최고사명부지휘처에서 보초를 서다가 그의 품에 안겨 영광의 기념사적을 찍은 군인이었다. 그러한 애제날의 보초병이 오늘은 어엿한 군관이 되었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 우리 녀성들과 어머니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값없는 삶을 빛내여가도록 끝없는 실험과 로고를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은 진정 자애로운 스승이시었다.

영원한 삶의 품 열 녀성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열망을 깊이 헤아리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병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적극 내세워주도록 하시었다.

자식들이 축하해주는 날 두해전 11월 16일이였다.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거리와 마을, 인민군초소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은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뜻깊은 그날 저녁 일꾼들은 대를 삼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이때뿐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정적의 길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혁명사적지를 찾았을 때 거기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키워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장에 내세우고있는 녀성장사까지 있었고 하시며 평범한 녀성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우리 어머니들을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로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장군님의 품은 진정이나 나나 녀성들과 어머니들모두가 안겨사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였다.

추리꽃이 만발한 날에 몽골 피어난 추리꽃들마다에서 진한 향기가 풍겨나오고 풀밭들도 봉봉 노래하며 날아 들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화장한 봄을 다투어 알려려는 듯 골안에는 추리꽃만이 아닌 딸보, 홍매까지 피어나 말고 대로 꽃바다를 이루었다. 강사들도,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도 이 신기한 자연현상을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실줄을 어이 알았으랴.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

이때뿐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정적의 길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혁명사적지를 찾았을 때 거기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키워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장에 내세우고있는 녀성장사까지 있었고 하시며 평범한 녀성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우리 어머니들을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로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장군님의 품은 진정이나 나나 녀성들과 어머니들모두가 안겨사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였다.

자식들이 축하해주는 날 두해전 11월 16일이였다.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거리와 마을, 인민군초소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은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뜻깊은 그날 저녁 일꾼들은 대를 삼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이때뿐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정적의 길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혁명사적지를 찾았을 때 거기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키워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장에 내세우고있는 녀성장사까지 있었고 하시며 평범한 녀성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우리 어머니들을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들로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장군님의 품은 진정이나 나나 녀성들과 어머니들모두가 안겨사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였다.

추리꽃이 만발한 날에 실 때 이 덧집을 지어놓았더라면 수령님께서 기뻐하시었을것이라고 뜨거운것이 찾아와서 시는 우리 장군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부르러서 담담히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한 군관이 있었다. 그대 말하면 주제 79(1990)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으셨을 때 최고사명부지휘처에서 보초를 서다가 그의 품에 안겨 영광의 기념사적을 찍은 군인이었다. 그러한 애제날의 보초병이 오늘은 어엿한 군관이 되었

추리꽃이 만발한 날에 실 때 이 덧집을 지어놓았더라면 수령님께서 기뻐하시었을것이라고 뜨거운것이 찾아와서 시는 우리 장군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부르러서 담담히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한 군관이 있었다. 그대 말하면 주제 79(1990)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으셨을 때 최고사명부지휘처에서 보초를 서다가 그의 품에 안겨 영광의 기념사적을 찍은 군인이었다. 그러한 애제날의 보초병이 오늘은 어엿한 군관이 되었

에게 축하해서도 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있다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었다. 어머니날은 자식들이 어머니들을 축하해주는 날이라고 하시며 이 나라 어머니들의 슬픈 로고를 헤아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는 일꾼들의 가슴도 뜨거워웠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든다고 하지만 아들딸들을 위해 한생을 살려내도 자그마한 보수나 평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지기를 바쳐가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온 나라가 설레이는 11월 16일이였다. 어머니날을 맞는 뜻깊은 11월의 환희,

참으로 그것은 온 나라 어머니들과 아들딸들이 터치는 감격이였다. 본사기자 백영수

오지 못하시었다. 해마다 피어나는 추리꽃은 애제날의 보초병의 가슴속에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약속을 우리 장군님께서 지켜주시었다. 추리꽃이 앞당겨 피어난 날 어머니수령님의 햇빛같은 미소를 그대로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적지를 찾으셨을 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러는 옛 보초병의 심정은 그리도 뜨거워졌었다. 《어머이 수령님 피어난 날에 오시겠다던 그 약속을 지켜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였습니다.》

그후 추리꽃이 피어날 때마다 이곳 사람들은 어머니수령님을 더더욱 그리워하는 전사들의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시는줄을 대자연도 알고 계절을 앞당겨 만발한 추리꽃바다를 펼쳐드렸다고 하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가곤 하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 조국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랑을 바치는 어머니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 어머니 날을 맞으 며

### 어머니들의 심장의 메아리—우리 원수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 시대의 추복과 더불어 울려 퍼지는 노래 들을 들으며

11월 16일, 오늘은 어머니날이다. 고맙고 훌륭한 어머니들에게 어떤 축하의 선물을 드릴 것인가, 아마도 소박하고 정성깊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진정을 담아 불러주는 축하의 노래를, 자식들과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 사랑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제일 좋아할 것이다.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우리의 어머니들도 자식들도 제일 먼저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어머니에 대한 송가는 불후의 고전명작 《나의 어머니》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나이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한 헌신을 천품으로 지녔다고 어머니라고 말한다. 낯익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가장 큰 소원이며 행복이다. 그 꿈을 위해 어머니는 꾸미머리 화려할 때까지 자식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래서 세상에 너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도 생겨났던 것이다.

하디먼 어이하여 이 나라 어머니들과 아들딸들은 수많은 어머니송가들중에서 《나의 어머니》를 그토록 가슴에 새기고 절절히 부르셨던 것이다.

노래 《나의 어머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시고 학창시절에 작곡하신 명곡이다.

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겪은 고생을 다 합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일동지께서 해주신 고생과 한생 맞으신 눈비에 대비할 수 없다.

백살꽃은 해마다 피어나지만 수년의 땅에서 피어나는 백살꽃은 실음과 눈물의 꽃으로 안겨오던 회령에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모성에 어떻게 짓밟히는가를 뼈아프게 절감하신 김정일동지이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머니들이 눈물없이 사는 그날을 안아오시기 위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명도하시는 항일대전에 용감 나서시었다.

사랑하는 일가분들을 다 잃으신 몸으로 항일의 혈전전투를 해치신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강하시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에게는 배두광명성을 민족애로 안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더욱 위대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너무도 짧은 혈연의 정을 나누신것을 뼈아프게 새기고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도 부어 줄수 없는 뜨거운 정을 받아안으신분의 우리의 장군님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백두밀밭에 울리신 흥성을 들으시던 그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갈 배두산장군의 넋을 새기시었고 어머니와 함께 애국의 땅을 바치신 보통강계수공사에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알게 되시었고 소나무우거진 만경봉에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해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음성에서 위대한 승승의 가르침을 들으시었다. 정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일동지께서는 명곡에 대한 절절함이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조선의 고운 꿈을 꽃피워주시었다.

인류음악사에는 어머니의 꿈을 실은 자장가를 명곡으로 지어 후세에 유명해진 음악가들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온 나라 어머니들과 자식들의 심금을 강그러 틀어잡는 어머니의 노래, 걸출한 녀성혁명가의 영생송가를 지은 음악가로 위인을 알지 못하는.

노래 《나의 어머니》에 용감처럼 분출하는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는 명구절은 커다란 무게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참된 삶이 꽃피며 수령을 받드는 길에 찬란자식들의 미래가 열린다는 심원한 철리를 우리 장군님께서는 10대에 벌써 시대의 명곡으로 밝혀주셨다. 혁명의 철리, 참된 사랑의 통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전우이시며 어머니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혁명성에 서서 찾았으셨으며 한평생 어머니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선군혁명전투를 해치오시었다.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의 혁명생애와 고결한 넋이 뜨겁게 반영되고 민족의 위대한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열거같은 사랑과 불라는 맹세가 절절히 굽어치기에 불후의 고전명작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드리는 송가의 정화로, 조선의 어머니들과 아들딸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명곡으로 새겨져 이어 울려 퍼지는 것이다.

어머니들에게는 고유한 서정세계, 음악세계가 있다. 그러나 대세 이어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내 나라의 어머니들의 음악세계처럼 힘있고 고상한 서정의 세계는 찾아볼수 없다. 하여 조선의 어머니들의 음악세계에는 심원한 사랑의 철리가 있고 참되고 고결한 인생의 긍지가 담겨져있는 것이다. 그 숭고한 음악세계의 핵은 위대한 당에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의 운명을 담을 위대한 인연의 절대적인 믿음이며 아들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백육같은

충정을 변함없이 바치며 멋뻑하고 긍지 높게 살기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의 한 시인은 유명한 서정시 《어머니》에서 어머니란 이 말보다 우리 당에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은 없다고 노래하였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위대한 당이 있다. 설사 어머니를 잃은 자식은 있을수 있어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안기지 못한 자식은 단명도 없다.

하기에 어머니를 맞는 내 나라 강산에 어머니들과 아들딸들모두가 부르는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지는 것이다.

몇해전 북방의 한 평범한 녀인이 장래는 원수님에 살가 울린 편지의 정정된 편지글이 오늘날도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슴을 절절히 울려주고있다.

은 나라 가정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듯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인 저도 언젠가 자식들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입당시킬수 있었을 때를 회상하며 두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간직해왔다고, 그런데 당에서는 그 소원을 풀어주었다고 가슴에 풀어버리는 격정을 적은 소박한 편지였다.

그 소박한 편지를 받아보시고 장래는 원수님께서는 자식이 잘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 웃으며 웃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띠를 오르는 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아들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우리 당에서 잘 이끌고 도와주었다는 사랑의 친절을 보내주셨다.

한방울의 물방울에도 우주가 비친다 하였다.

모성애로 뉘러는 심장에 조선로동당이 이어주는 불꽃을 지어보았기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제도 오늘도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도 당에 맡기고 아들딸들을 당을 위한 인연의 단심에 인생길로 떠밀어주시었다.

으로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공수

의 힘이 들고 자식들격으로 어머니의 열두자락마복이 마를새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인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보검으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었고 그 하늘 아래 인민의 꿈, 어머니들의 행복을 꽃피워주고있다. 기쁨속에 고마움속에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그 가족과 함께 부르는 어머니들의 가슴마다에 정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울리고있다.

우리가 고생을 맡게 여기며 투쟁하는것은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세상에 부럼없어라!》구호를 보면 어찌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신 정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위대한 어머니당의 목소리였다.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이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에 의해서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하였던 창조물들이 수놓쳐 밀어내고 귀여운 자식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부르는 조국이 있어 어머니의 행복은 나뉘어 키치고 기쁨의 노래소리 높이 날아간다. 하기에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아들딸들의 축하와 시대의 추복속에 어머니날을 맞는 우리 어머니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만을 일떠들인 줄이나 할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며 자식들과 함께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경애하여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편지가 전해질 때면 구역의 녀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조국을 위해,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결의를 굳게 다지곤 하였다.

녀성원들은 수년전 월간대 혁명학원 원아들과 구역안의 전성로복, 영예공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바쳤다.

그날 맑은거리 2동 녀맹초급단체위원장 김숙순동무는 영예공인 신철봉동무의 가정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곤 하였고 함께 몇해동안 평양화력발전원합기집소에서 찾아간 전력생산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보통강2동, 경흥동, 봉화동, 신원동을 비롯한 구역안의 초급녀맹조직들에서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내고있다.

하기에 어머니들이 몇해전 어머니이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녀맹에 출사조종합공연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구역의 사람들은 물론과 조국을 굳건히 지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어찌 이렇습니까. 어머니의 본분을 지켜 구역안의 솔한 자식들을 위해 해마다 진정을 바치는 보통강구역 녀맹원들이었다.

10여년세월이 흘렀다. 그날 구역의 녀맹원들이 정성껏 만든 병사수첩을 안고 초소로 떠난 솔한 자식들이 팔팔한 병사로, 군관으로 자라났다.

언제인가 구역녀맹위원장 송양만동무는 한 병사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혁명의 군복입고 초소로 떠날 때 마음까지 바빠주며 축하해주던 어머니들, 오늘날 군사복을 잘차려도 걸음걸을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머니들에게 병사의 경례를 드립니다.》

본사기자 오은별

미더운 아들 딸들의 경제력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사랑을 해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어머니의 생은 뿌리라고 같다. 세월의 눈비에 광풍도 이겨내며 거목을 떠받드는 뿌리처럼 어머니는 일생 자식

행복과 영광만이 있기를 축하하며

우리는 어머니를 소리높이 자랑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박사 신영애동무의 가정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한껏 느끼는 동대원애국편직공장 녀성들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창 수

본사기자 오은별

### 우리 나라 려은희선수 여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 쟁취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의 려은희선수가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여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선수권을 보유하였다.

려은희선수는 2012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와 2013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국제체육계에 잘 알려져 있다.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있는 두번째 11월 15일 자원물자들을 가지고 한 녀성이 대총련영웅광산 무학분광산 승리광 광부들을 찾아왔다. 그는 대총련이 있지 못해하는 심금철영웅을 낳아주는 김순복녀성이었다.

그에게는 오누이 두 자식이 있었다. 맏이가 심금철동무였다.

자식들을 건강하면서 데마르 게 키우는데 낯다른 관심을 기울여 그는 아들에게 한생을 후회없이 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어르곤 했다. 부끄럽없이 사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생활동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있는 두번째 11월 15일 자원물자들을 가지고 한 녀성이 대총련영웅광산 무학분광산 승리광 광부들을 찾아왔다. 그는 대총련이 있지 못해하는 심금철영웅을 낳아주는 김순복녀성이었다.

그에게는 오누이 두 자식이 있었다. 맏이가 심금철동무였다.

자식들을 건강하면서 데마르 게 키우는데 낯다른 관심을 기울여 그는 아들에게 한생을 후회없이 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어르곤 했다. 부끄럽없이 사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생활동

### 뜻깊은 날의 제일 큰 선물-영웅메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어머니날을 앞두고 온 나라가 흥성거렸다.

어머니에게 드릴 축하의 선물을 고르려 꽃망과 기념품대도 달려가고, 멀리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소원하는 진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자식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어머니를 추모하기 그리고...

경성군에 살고있는 방순복동무의 가정에서도 도의가 분분하였다.

방순복동무가 맡아담게 전화를 받고, 인연으로 동생들에게 포치 사업을 제에게 하고있는데 리원선로인이 결례서 혀를 찼다.

《마음쓰지들 말아라. 이 어머니야 벌써 꼭직한 선물을 받지 않잖나.》

은이 동그레지는 방순복동무에게 리원선로인이 다시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시는 영웅메달을 우리 가정에서 받지 않았잖나.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느냐.》

장한 아들을 그려보듯 리원선로인의 눈길은 멀리 하늘가로 향하였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5명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중의 한 사람인 방정철동무가 바로 그의 아들인것이다.

경성군에는 리원선로인의 여러 딸들이 살고있어 매없이 그들이 친정집을 찾았으나 아이들이 인연으로 그만은 고향학교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임명받고 한뼉, 몇해가 지나 중대장이 되어 고향에 왔을때만 그후로는 아들을 보지 못하였었다. 대대장이 된 소식도 편지로 받았다.

그런데 바로 10여일전 아들이 영웅의 대회에 참가하였던 단애 올라 트로까지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수여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농장의 손꼽히는 혁신자였고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모서진 시계표장을 수여받았다.

지나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그에게 뜻깊은 선물이 와왔다.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치지도원대회에서 영웅이 된 지휘관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자기 아들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속에 나라의 영광을 수놓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로력영웅칭호를 받은 아들의 장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올해의 어머니날을 맞으며 자기를 낳아키운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경의, 가장 훌륭한 선물을 드린 참된 자식들이었다.

지금 이 시각도 존경하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줄이줄이 아름답게 축하의 꽃다발들이 이루어지고있다.

향기로은 꽃다발과 뜻깊은 선물을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찾아 달려가는 이 땅의 수천수만 자식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자랑이 되게 살고있는가. 본사기자 허명숙

### 한생토록 안고 사는 소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있는 두번째 11월 15일 자원물자들을 가지고 한 녀성이 대총련영웅광산 무학분광산 승리광 광부들을 찾아왔다. 그는 대총련이 있지 못해하는 심금철영웅을 낳아주는 김순복녀성이었다.

그에게는 오누이 두 자식이 있었다. 맏이가 심금철동무였다.

자식들을 건강하면서 데마르 게 키우는데 낯다른 관심을 기울여 그는 아들에게 한생을 후회없이 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어르곤 했다. 부끄럽없이 사는것이 어떤것인가를 실생활동

### 뜻깊은 날의 제일 큰 선물-영웅메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어머니날을 앞두고 온 나라가 흥성거렸다.

어머니에게 드릴 축하의 선물을 고르려 꽃망과 기념품대도 달려가고, 멀리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소원하는 진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자식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어머니를 추모하기 그리고...

경성군에 살고있는 방순복동무의 가정에서도 도의가 분분하였다.

방순복동무가 맡아담게 전화를 받고, 인연으로 동생들에게 포치 사업을 제에게 하고있는데 리원선로인이 결례서 혀를 찼다.

《마음쓰지들 말아라. 이 어머니야 벌써 꼭직한 선물을 받지 않잖나.》

은이 동그레지는 방순복동무에게 리원선로인이 다시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시는 영웅메달을 우리 가정에서 받지 않았잖나.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느냐.》

장한 아들을 그려보듯 리원선로인의 눈길은 멀리 하늘가로 향하였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5명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중의 한 사람인 방정철동무가 바로 그의 아들인것이다.

경성군에는 리원선로인의 여러 딸들이 살고있어 매없이 그들이 친정집을 찾았으나 아이들이 인연으로 그만은 고향학교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임명받고 한뼉, 몇해가 지나 중대장이 되어 고향에 왔을때만 그후로는 아들을 보지 못하였었다. 대대장이 된 소식도 편지로 받았다.

그런데 바로 10여일전 아들이 영웅의 대회에 참가하였던 단애 올라 트로까지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수여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농장의 손꼽히는 혁신자였고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모서진 시계표장을 수여받았다.

지나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그에게 뜻깊은 선물이 와왔다.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치지도원대회에서 영웅이 된 지휘관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자기 아들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속에 나라의 영광을 수놓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로력영웅칭호를 받은 아들의 장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올해의 어머니날을 맞으며 자기를 낳아키운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경의, 가장 훌륭한 선물을 드린 참된 자식들이었다.

지금 이 시각도 존경하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줄이줄이 아름답게 축하의 꽃다발들이 이루어지고있다.

향기로은 꽃다발과 뜻깊은 선물을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찾아 달려가는 이 땅의 수천수만 자식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자랑이 되게 살고있는가. 본사기자 허명숙

### 향기로은 꽃다발과 안고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꽃다발과 축하장 기념품상점들에 사람들이 흥성이고있다.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조국의 미래를 안아키우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수레를 끌고가는 어머니들에게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이 열렬한 축하의 인사, 향기로은 꽃다발을 드리기 위하여!

글 및 사진 본사기자

### 뜻깊은 날의 제일 큰 선물-영웅메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어머니날을 앞두고 온 나라가 흥성거렸다.

어머니에게 드릴 축하의 선물을 고르려 꽃망과 기념품대도 달려가고, 멀리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소원하는 진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자식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어머니를 추모하기 그리고...

경성군에 살고있는 방순복동무의 가정에서도 도의가 분분하였다.

방순복동무가 맡아담게 전화를 받고, 인연으로 동생들에게 포치 사업을 제에게 하고있는데 리원선로인이 결례서 혀를 찼다.

《마음쓰지들 말아라. 이 어머니야 벌써 꼭직한 선물을 받지 않잖나.》

은이 동그레지는 방순복동무에게 리원선로인이 다시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시는 영웅메달을 우리 가정에서 받지 않았잖나.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느냐.》

장한 아들을 그려보듯 리원선로인의 눈길은 멀리 하늘가로 향하였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5명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중의 한 사람인 방정철동무가 바로 그의 아들인것이다.

경성군에는 리원선로인의 여러 딸들이 살고있어 매없이 그들이 친정집을 찾았으나 아이들이 인연으로 그만은 고향학교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임명받고 한뼉, 몇해가 지나 중대장이 되어 고향에 왔을때만 그후로는 아들을 보지 못하였었다. 대대장이 된 소식도 편지로 받았다.

그런데 바로 10여일전 아들이 영웅의 대회에 참가하였던 단애 올라 트로까지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수여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농장의 손꼽히는 혁신자였고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모서진 시계표장을 수여받았다.

지나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그에게 뜻깊은 선물이 와왔다.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치지도원대회에서 영웅이 된 지휘관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자기 아들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속에 나라의 영광을 수놓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로력영웅칭호를 받은 아들의 장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올해의 어머니날을 맞으며 자기를 낳아키운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경의, 가장 훌륭한 선물을 드린 참된 자식들이었다.

지금 이 시각도 존경하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줄이줄이 아름답게 축하의 꽃다발들이 이루어지고있다.

향기로은 꽃다발과 뜻깊은 선물을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찾아 달려가는 이 땅의 수천수만 자식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자랑이 되게 살고있는가. 본사기자 허명숙

### 뜻깊은 날의 제일 큰 선물-영웅메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어머니날을 앞두고 온 나라가 흥성거렸다.

어머니에게 드릴 축하의 선물을 고르려 꽃망과 기념품대도 달려가고, 멀리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소원하는 진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자식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어머니를 추모하기 그리고...

경성군에 살고있는 방순복동무의 가정에서도 도의가 분분하였다.

방순복동무가 맡아담게 전화를 받고, 인연으로 동생들에게 포치 사업을 제에게 하고있는데 리원선로인이 결례서 혀를 찼다.

《마음쓰지들 말아라. 이 어머니야 벌써 꼭직한 선물을 받지 않잖나.》

은이 동그레지는 방순복동무에게 리원선로인이 다시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시는 영웅메달을 우리 가정에서 받지 않았잖나.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느냐.》

장한 아들을 그려보듯 리원선로인의 눈길은 멀리 하늘가로 향하였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5명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중의 한 사람인 방정철동무가 바로 그의 아들인것이다.

경성군에는 리원선로인의 여러 딸들이 살고있어 매없이 그들이 친정집을 찾았으나 아이들이 인연으로 그만은 고향학교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임명받고 한뼉, 몇해가 지나 중대장이 되어 고향에 왔을때만 그후로는 아들을 보지 못하였었다. 대대장이 된 소식도 편지로 받았다.

그런데 바로 10여일전 아들이 영웅의 대회에 참가하였던 단애 올라 트로까지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수여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농장의 손꼽히는 혁신자였고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모서진 시계표장을 수여받았다.

지나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그에게 뜻깊은 선물이 와왔다.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치지도원대회에서 영웅이 된 지휘관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자기 아들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속에 나라의 영광을 수놓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로력영웅칭호를 받은 아들의 장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올해의 어머니날을 맞으며 자기를 낳아키운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경의, 가장 훌륭한 선물을 드린 참된 자식들이었다.

지금 이 시각도 존경하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줄이줄이 아름답게 축하의 꽃다발들이 이루어지고있다.

향기로은 꽃다발과 뜻깊은 선물을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찾아 달려가는 이 땅의 수천수만 자식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자랑이 되게 살고있는가. 본사기자 허명숙

### 뜻깊은 날의 제일 큰 선물-영웅메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어머니날을 앞두고 온 나라가 흥성거렸다.

어머니에게 드릴 축하의 선물을 고르려 꽃망과 기념품대도 달려가고, 멀리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소원하는 진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자식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어머니를 추모하기 그리고...

경성군에 살고있는 방순복동무의 가정에서도 도의가 분분하였다.

방순복동무가 맡아담게 전화를 받고, 인연으로 동생들에게 포치 사업을 제에게 하고있는데 리원선로인이 결례서 혀를 찼다.

《마음쓰지들 말아라. 이 어머니야 벌써 꼭직한 선물을 받지 않잖나.》

은이 동그레지는 방순복동무에게 리원선로인이 다시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시는 영웅메달을 우리 가정에서 받지 않았잖나.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느냐.》

장한 아들을 그려보듯 리원선로인의 눈길은 멀리 하늘가로 향하였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5명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중의 한 사람인 방정철동무가 바로 그의 아들인것이다.

경성군에는 리원선로인의 여러 딸들이 살고있어 매없이 그들이 친정집을 찾았으나 아이들이 인연으로 그만은 고향학교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임명받고 한뼉, 몇해가 지나 중대장이 되어 고향에 왔을때만 그후로는 아들을 보지 못하였었다. 대대장이 된 소식도 편지로 받았다.

그런데 바로 10여일전 아들이 영웅의 대회에 참가하였던 단애 올라 트로까지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수여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농장의 손꼽히는 혁신자였고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모서진 시계표장을 수여받았다.

지나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그에게 뜻깊은 선물이 와왔다. 아들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기념품과 대회의 날에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길선로인은 그것을 동네방네에 자랑하였다.

《우리 아들이 보낸것이라.》

그는 마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의 대회에 참가한 아들이 영웅이라든가 된듯이 기뻐던것이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날을 앞두고 아들은 정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오길선로인은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결에 있어야만 아들구실을 하나요? 부모들의 뜻대로 당에 충실하는것이 진짜 자식구실이지.》

이것이 어찌 리원선, 오길선로인들의 심정만이었는가.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장

치지도원대회에서 영웅이 된 지휘관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자기 아들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속에 나라의 영광을 수놓아 주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로력영웅칭호를 받은 아들의 장한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올해의 어머니날을 맞으며 자기를 낳아키운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경의, 가장 훌륭한 선물을 드린 참된 자식들이었다.

지금 이 시각도 존경하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줄이줄이 아름답게 축하의 꽃다발들이 이루어지고있다.

향기로은 꽃다발과 뜻깊은 선물을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찾아 달려가는 이 땅의 수천수만 자식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자랑이 되게 살고있는가. 본사기자 허명숙



# 《조선여성들의 긍지에 넘친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 국제사회계가 격찬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여성들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계는 가장 우월하고 교마은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서 여성들이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책임감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인민과학자, 인민체육인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참가해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에 대한 찬란한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방문나날에 조선여성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에 대하여 직접 느끼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그들이 가정과 사회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있다.

어린이교육요양기지에서 울러나오는 아이들의 명랑한 노래소리는 어머니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여성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밝은 미래만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조선여성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나간다고 굳게 믿는다.》

조선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과 노동생활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가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여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락아수, 유원철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주고 있다.

국가부담으로 어린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조선여성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제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운동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조선여성들의 신심과 락관에 넘친 모습은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 여성 혁명투쟁가는 크나큰 믿음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고 있는 여성인민들, 여성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선여성들은 끝없는 행복과 환희를 느끼며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비쳐가고 있다.》

브라질여성연맹 위원장 글라

우씨야 데 파르마 바르반 모델리는 나라의 통성변명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를 세워주고 있다.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조선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진과 같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을 금할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온갖 온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행동과 기정은 동지끼리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먼거리의 로동봉사체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진행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의로봉사자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이하는 감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지었다.

그렇다. 이 모든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내선수민들의 열화같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는 경이하는 현수민의 내선준중, 내선중주의 참다운 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 핵전쟁을 추구하는 위험한 행위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136기의 《메트리트-3》요격미사일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저들이 왜 남조선피뢰탄과 전직작전통제권을 연기하였는가에 대해 스스로 폭로하였다.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이 무력을 증강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저들의 무장장비를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 미지배계층의 음흉한 속심이다. 지금 미국의 군사산업체들이 남조선에서의 전직작전통제권으로 돈소나기를 맞고 있다고 회심의 웃음을 짓고 있다. 경제위기로 허덕이던 미국의 군사제법들이 돈낭자리를 타고 갔고 있었으니 왜 그렇지 않았는가. 록시드 마틴, 메디온회사들이 손뼉을 치며 저들의 하수인노릇을 끝날라는 남조선피뢰탄을 두고 내속으로는 머지않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인장비생산을 미처놓아달았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미국이 내속은 목숨을 그로 하여 조선민족끼리 서로 대결하는 장면도 보지는데 있다. 일석다조를 노린 미국의 《죽음의 상인》들이 고안해낸 무기판매물음은 우리 겨레의 동족상쟁을 불러오는 범죄적행동이 아닐수 없다. 격분스러운것은 남조선피뢰탄이 자기 민족을 희생물로 하여 미국의 배를 불리려하고 있는 것이다. 침략자와 대국국사회의 무기장사들은 온 조선민족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무기판매에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전에도 부합된다.》라고 열심히 광고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이 요격미사일판매가 실현되는 경우 미국과 남조선무력사이의 군사적협동을 강화하게 되고 남조선의 안전뿐 아니라 남조선주둔 미군의 안전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며 지역의 안정도 보장할것이라는것이 무기장사군들의 구구한 변명이다.

미조선전력들이 아무리 구차스러운 너두리를 늘어놓아도 흉악한 속심은 어디에도 감출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이 피뢰탄과 함께 전례없는 규모로 《죽음》복합집행 연습을 광범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이 피뢰탄에 최선무장장비들을 넘겨주기 결정하였다. 이것을 과연 우연한 일치로 보겠는가.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이번 요격미사일판매결정을 피뢰탄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구름을 기어올려오는 비

험한 행위로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장검 미군이 《메트리트》를 비롯한 각종 미사일을 수없이 배비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보호》를 제창하는 미국이 저들의 침략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남조선에 팔아넘기려는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매를 그 무슨 《지역안정의 보장》을 위한것으로 광고하는것도 황당하게 짝이 없다.

지금 미국은 유럽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다그치는 한편 아시아에서도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고 발광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국이 《북조선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표방시키려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이것은 요격미사일판매는 남조선에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려는 흉악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에 가져올것이다. 그러고 그것은 나아가서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파괴하게 될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요격미사일구입이 저들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떠드는 남조선피뢰탄의 말은 전쟁머슴군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으로부터 매년 넘겨받기로 되었던 전직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한것과 때를 같이 하여 벌린 피뢰탄의 무기구입물음은 절대도 스톱보낼수 없다. 강도를 외세의 핵전쟁마당으로 내밀면서라도 《안보》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너스레를 떠는것은 쓸개빠진 대국국정판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의 정당성을 더욱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메트리트》요격미사일파워로 남조선장검 미군의 안전이 지켜질것처럼 떠드는데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침략자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조공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조선장검 미군부하 소절민에 넣고 침략자들의 아성을 총두리째 들이밀것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침략자들과 사대대국국들의 무기장사물음은 우리를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때릴뿐이다.

일본여성주제사상연구회대표 단 단장 주구하마 세코요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 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격이 훌륭히 담보되고 있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조선여성들의 긍지에 넘친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일랜드전선대표 이리나 말렌도는 조선의 무거운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가 세워준 보육기지를 여성중심의 화원속에서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속에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느꼈다. 바로 이 제도야말로 여성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 왔던 라오스여성동맹대표 단장 쎬씨아 트렛몬손도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과 노동생활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가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여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락아수, 유원철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주고 있다.

국가부담으로 어린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조선여성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제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운동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조선여성들의 신심과 락관에 넘친 모습은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 여성 혁명투쟁가는 크나큰 믿음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고 있는 여성인민들, 여성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선여성들은 끝없는 행복과 환희를 느끼며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비쳐가고 있다.》

브라질여성연맹 위원장 글라

우씨야 데 파르마 바르반 모델리는 나라의 통성변명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를 세워주고 있다.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조선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진과 같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을 금할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온갖 온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행동과 기정은 동지끼리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먼거리의 로동봉사체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진행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의로봉사자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이하는 감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지었다.

그렇다. 이 모든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내선수민들의 열화같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는 경이하는 현수민의 내선준중, 내선중주의 참다운 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우씨야 데 파르마 바르반 모델리는 나라의 통성변명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를 세워주고 있다.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조선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진과 같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을 금할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온갖 온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행동과 기정은 동지끼리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먼거리의 로동봉사체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진행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의로봉사자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이하는 감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지었다.

그렇다. 이 모든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내선수민들의 열화같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는 경이하는 현수민의 내선준중, 내선중주의 참다운 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우씨야 데 파르마 바르반 모델리는 나라의 통성변명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를 세워주고 있다.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조선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진과 같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을 금할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온갖 온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행동과 기정은 동지끼리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먼거리의 로동봉사체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진행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의로봉사자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이하는 감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지었다.

그렇다. 이 모든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내선수민들의 열화같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는 경이하는 현수민의 내선준중, 내선중주의 참다운 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우씨야 데 파르마 바르반 모델리는 나라의 통성변명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를 세워주고 있다.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조선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진과 같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을 금할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온갖 온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행동과 기정은 동지끼리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먼거리의 로동봉사체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진행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의로봉사자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이하는 감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지었다.

그렇다. 이 모든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내선수민들의 열화같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는 경이하는 현수민의 내선준중, 내선중주의 참다운 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우씨야 데 파르마 바르반 모델리는 나라의 통성변명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를 세워주고 있다.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조선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진과 같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을 금할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온갖 온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행동과 기정은 동지끼리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먼거리의 로동봉사체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진행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의로봉사자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이하는 감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지었다.

그렇다. 이 모든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내선수민들의 열화같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는 경이하는 현수민의 내선준중, 내선중주의 참다운 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우씨야 데 파르마 바르반 모델리는 나라의 통성변명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복속에 바퀴를 힘있게 돌리고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를 세워주고 있다.

여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조선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진과 같은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을 금할 수 없는 훌륭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온갖 온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조선인민의 행동과 기정은 동지끼리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특히 먼거리의 로동봉사체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진행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여성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훌륭한 의로봉사자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이하는 감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마다 감탄을 터지었다.

그렇다. 이 모든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내선수민들의 열화같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주시는 경이하는 현수민의 내선준중, 내선중주의 참다운 정치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 독립국가협동체 국방상리사회 회의 진행

독립국가협동체 국방상리사회 회의가 11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로씨야, 벨라루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까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국방상리사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는 성원국들사이의 군사협조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2015년에 협동체군사훈련을 진행할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노력

지역의 농업발전 문제에 대해 언급

르완다농업상이 얼마전 국제연대에서 연설하면서 지역의 농업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농업기술자들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리는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나는 핵에너지기술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출 증대

필리핀에서 9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7%

증대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 전자제품수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11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여러 나라들 협조

슬로베니아와 체코가 6일 무역, 투자, 교류분야에서 생부협조를 확대강화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신 가 포 르 의 항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 비판과 가 절망속에서 여성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비판과 절망, 타락의 속명으로 여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여성들의 첫째가는 속명으로 되고 있다. 최근년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고 경영손실을 메꾸는 데 미명하여 저저마다 대대적인 해고소동을 벌리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업체에서 우선적인 해고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로 하여 일리리물 제일 힘들게 얻는것과 여성들이 어떻게 병원에서의 해산장소를 바랄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청년기호 환자가 아니라 그의 돈주머니부터 가늘어지는 의사들에 의해 여성들이 한지에서 해산하는 비극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몇몇몇 어느 한 나라의 한 식당에서 해고되어 태어난자와 10분도 지나지 않아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한 한 여자가 울고있는 장면이 있다. 사 람들의 곁을 지어낸 사건의 범인은 다른이 아닌 아이의 어머니의 속명이다.

몇몇몇 어느 한 나라의 한 식당에서 해고되어 태어난자와 10분도 지나지 않아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한 한 여자가 울고있는 장면이 있다. 사 람들의 곁을 지어낸 사건의 범인은 다른이 아닌 아이의 어머니의 속명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여성들은 비판과 절망, 타락의 속명으로 여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여성들의 첫째가는 속명으로 되고 있다. 최근년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고 경영손실을 메꾸는 데 미명하여 저저마다 대대적인 해고소동을 벌리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업체에서 우선적인 해고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로 하여 일리리물 제일 힘들게 얻는것과 여성들이 어떻게 병원에서의 해산장소를 바랄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청년기호 환자가 아니라 그의 돈주머니부터 가늘어지는 의사들에 의해 여성들이 한지에서 해산하는 비극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몇몇몇 어느 한 나라의 한 식당에서 해고되어 태어난자와 10분도 지나지 않아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한 한 여자가 울고있는 장면이 있다. 사 람들의 곁을 지어낸 사건의 범인은 다른이 아닌 아이의 어머니의 속명이다.

# 인권말살자, 주권침해의 주범 - 미국의 정체

1866년 8월 정체를 명명해 내한적이 대동강에 구에 내려왔다. 미제침략선 《서면》호였다. 당시 《서면》호는 순수 상업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는 평화적인 상선으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면 《서면》호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진짜 상업적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는가. 《서면》호의 정체를 인차 드러냈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양초 《서면》호는 국권유린을 목적인 침략선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서면》호는 대동강에 들어오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동조조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면》호를 발견한 통감관의 한 판리가 침입목적에 대하여 따지고들자 배에 탄 침략자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뱃선처럼 대동강을 통과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판리를 락탈하고 부녀자료를 통용하는 등 온갖 날강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 또다시 드러난 추악한 살인만행

필리핀에서 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말라오 수도 마닐라로부러 북쪽에서 150km 떨어진 이 한 도시의 살인만행이 26살 난 필리핀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목적자들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집에 내란된 필리핀사람이라는 미해병대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말하면 최근에는 미국-필리핀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미해군의 수륙합동훈련을 계속 실시한다는 소속된 19살 난 일병이라고 한다.

살해된 여성의 가족들과 현 주민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갖은 위협행위를 일삼다 무려 인간살해를 서슴치 않는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에 격분해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태도이다.

반성과 회의를 이 아니라 마지 않음으로 무방하다는 거만한 자세로 나오고있는 것이다.

살인자를 필리핀측에 넘길 때 대한 현지주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어 미군측은 말로는 사

말라오 수도 마닐라로부러 북쪽에서 150km 떨어진 이 한 도시의 살인만행이 26살 난 필리핀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목적자들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집에 내란된 필리핀사람이라는 미해병대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말하면 최근에는 미국-필리핀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미해군의 수륙합동훈련을 계속 실시한다는 소속된 19살 난 일병이라고 한다.

살해된 여성의 가족들과 현 주민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갖은 위협행위를 일삼다 무려 인간살해를 서슴치 않는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에 격분해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태도이다.

반성과 회의를 이 아니라 마지 않음으로 무방하다는 거만한 자세로 나오고있는 것이다.

살인자를 필리핀측에 넘길 때 대한 현지주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어 미군측은 말로는 사

말라오 수도 마닐라로부러 북쪽에서 150km 떨어진 이 한 도시의 살인만행이 26살 난 필리핀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목적자들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집에 내란된 필리핀사람이라는 미해병대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말하면 최근에는 미국-필리핀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미해군의 수륙합동훈련을 계속 실시한다는 소속된 19살 난 일병이라고 한다.

살해된 여성의 가족들과 현 주민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갖은 위협행위를 일삼다 무려 인간살해를 서슴치 않는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에 격분해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태도이다.

반성과 회의를 이 아니라 마지 않음으로 무방하다는 거만한 자세로 나오고있는 것이다.

살인자를 필리핀측에 넘길 때 대한 현지주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어 미군측은 말로는 사

말라오 수도 마닐라로부러 북쪽에서 150km 떨어진 이 한 도시의 살인만행이 26살 난 필리핀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목적자들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집에 내란된 필리핀사람이라는 미해병대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말하면 최근에는 미국-필리핀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미해군의 수륙합동훈련을 계속 실시한다는 소속된 19살 난 일병이라고 한다.

살해된 여성의 가족들과 현 주민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갖은 위협행위를 일삼다 무려 인간살해를 서슴치 않는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에 격분해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태도이다.

반성과 회의를 이 아니라 마지 않음으로 무방하다는 거만한 자세로 나오고있는 것이다.

살인자를 필리핀측에 넘길 때 대한 현지주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어 미군측은 말로는 사

말라오 수도 마닐라로부러 북쪽에서 150km 떨어진 이 한 도시의 살인만행이 26살 난 필리핀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목적자들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집에 내란된 필리핀사람이라는 미해병대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말하면 최근에는 미국-필리핀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미해군의 수륙합동훈련을 계속 실시한다는 소속된 19살 난 일병이라고 한다.

살해된 여성의 가족들과 현 주민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갖은 위협행위를 일삼다 무려 인간살해를 서슴치 않는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에 격분해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태도이다.

반성과 회의를 이 아니라 마지 않음으로 무방하다는 거만한 자세로 나오고있는 것이다.

살인자를 필리핀측에 넘길 때 대한 현지주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어 미군측은 말로는 사

# 미군무인습기 무고한 주민들을 계속 살해

미군이 《넬슨》의 미명하에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11일 미군무인기가 파키스탄의 북부지역에서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군의 만행은 현지주민들 속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이 《넬슨》의 미명하에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11일 미군무인기가 파키스탄의 북부지역에서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군의 만행은 현지주민들 속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이 《넬슨》의 미명하에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11일 미군무인기가 파키스탄의 북부지역에서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군의 만행은 현지주민들 속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이 《넬슨》의 미명하에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11일 미군무인기가 파키스탄의 북부지역에서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군의 만행은 현지주민들 속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이 《넬슨》의 미명하에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11일 미군무인기가 파키스탄의 북부지역에서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군의 만행은 현지주민들 속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